



미 증시, CPI 쇼크로 급락

미국 증시 리뷰

13일(화) 미국 증시는 예상치를 상회한 1월 CPI 결과 이후 금리인하 전망 후퇴, 미국채 10년물 금리 4.3%대까지 상승, 고점 인식으로 인한 기술주 약세 등 위험회피 심리 확산되며 급락 (다우 -1.35%, S&P500 -1.37%, 나스닥 -1.8%). 전업종 하락, 헬스케어(-0.9%), 필수소비재(-1%), 산업재(-1%)의 낙폭이 가장 작았고 경기소비재(-2%), 부동산(-1.8%), 유트리티(-1.7%)의 낙폭이 가장 커짐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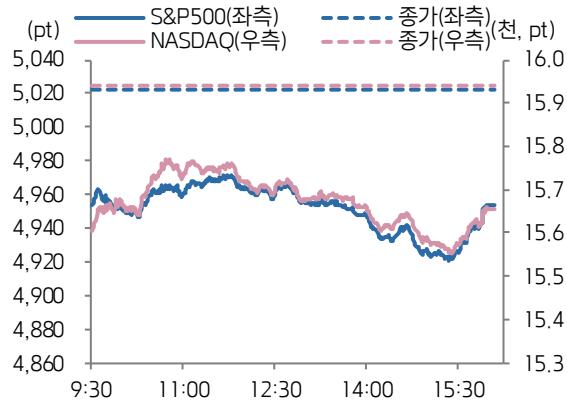
미국 1월 CPI YOY 3.1%(예상 2.9%, 전월 3.4%), MOM 0.3%(예상 0.2%, 전월 0.2%) 기록, 근원 CPI YOY 3.9%(예상 3.7%, 전월 3.9%), MOM 0.4%(예상 0.3%, 전월 0.3%) 기록하며 예상치 모두 상회.

MOM 에너지 전월 -0.2% → -0.9%, 중고차 0.6% → -3.4%, 의류 0.0 → -0.7%등 하락전환하며 상품물가 하락을 주도. 그러나 주거비 0.4 → 0.6%로 상승폭 확대하며 전체 물가 상승분의 2/3 기여. 또한 여행수요 증가로 인해 항공 0.9% → 1.4%, 자동차보험 1.7% → 1.4% 등 전체 운송 서비스 0.1% → 1.0% 상승한 점이 서비스 물가 상승 주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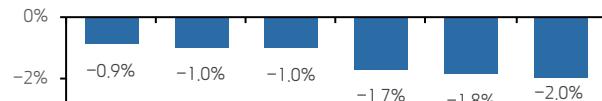
전미부동산협회(NAR) 측은 주거비 인플레이션은 연준의 인플레이션 목표치 도달을 방해하는 "완고함의 가장 큰 하나의 원인 중 하나"라고 언급. 임대료 상승률은 낮은 한자릿수 대로, CPI의 주거비는 6개월마다 해당 시점에 주거비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갱신되지 않은 임대료와 갱신된 임대료가 혼재해 실제 시장 가격보다 훨씬 더 비탄력적이므로 실제 시장의 임대료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고 지적. 1월 주거비의 상승은 지난봄 강력한 임대료 상승을 반영하고 있으며, 시장에 주택 물량이 적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평가. 특히 재고가 부족한 단독주택 시장의 경우 자가주거비(OER)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.

미국 의회 상원이 950 억 달러(약 127 조 원) 규모의 우크라이나·이스라엘·대만 지원 패키지를 승인.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한 600 억 달러, 이스라엘에 대한 141 억 달러의 안보 지원, 인도주의적 지원 92 억 달러, 인도 태평양 지역 파트너 지원 48 억 달러 등이 포함. 앞서 상원은 이스라엘, 우크라이나, 대만 지원과 국경통제 강화 등에 소요될 총액 1180 억 달러(약 158 조 원) 규모의 안보 예산안 패키지를 마련. 그러나 공화당이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 이견을 보이자 국경통제 강화 관련 내용을 뺀 새로운 안보 예산 수정안을 추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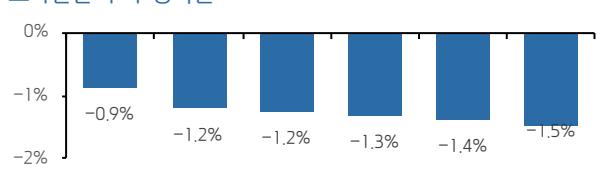
S&P500 & NASDAQ 일중 차트



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



스타일별 주가 등락률
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주요 지수					
주식시장			외환시장		
지수	가격	변화	지수	가격	변화
코스피	2,649.64	+1.12%	USD/KRW	1,327.97	-0.26%
코스피 200	357.38	+1.16%	달러 지수	104.87	+0.67%
코스닥	845.15	+2.25%	EUR/USD	1.07	+0.01%
코스닥 150	1,336.73	+2.33%	USD/CNH	7.23	+0%
S&P500	4,953.17	-1.37%	USD/JPY	150.81	+0.01%
NASDAQ	15,655.60	-1.8%	채권시장		
다우	38,272.75	-1.35%	국고채 3년	3.347	+4.3bp
VIX	15.85	+13.78%	국고채 10년	3.445	+4bp
러셀 2000	1,964.17	-3.96%	미국 국채 2년	4.658	+18.4bp
필라. 반도체	4,468.18	-2.01%	미국 국채 10년	4.314	+13.5bp
다우 운송	15,785.77	-2.62%	미국 국채 30년	4.463	+8.3bp
유럽, ETFs			원자재 시장		
Eurostoxx50	4,689.28	-1.2%	WTI	77.87	+1.24%
MSCI 전세계 지수	747.89	-0.01%	브렌트유	82.58	+0.71%
MSCI DM 지수	3,281.01	-0.01%	금	2005.8	-1.34%
MSCI EM 지수	996.06	+0.05%	은	22.15	-2.69%
MSCI 한국 ETF	62.71	-2.7%	구리	371.1	-0.35%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, 한국 오전 6 시 30 분 기준



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

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

MSCI 한국 지수 ETF 는 2.7% 하락, MSCI 신흥국 ETF 는 1.88% 하락. 유렉스 야간선물은 1.61% 하락. NDF 달러/원 환율 1 개월물은 1339.77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, 달러/원 환율은 12 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.

주요 체크 사항

1. 미국 1 월 CPI 쇼크가 국내 증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
2. 금리 상승이 고밸류에이션 주식들의 투자심리를 악화시킬지 여부
3. 저 PBR 업종들의 수급 변동성 확대 가능성

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

매번 증시의 단기 변곡점 역할을 하는 미국의 CPI는 1 월 수치가 헤드라인(YoY 3.1% vs 컨센 2.9%)과 코어(YoY, 3.9% vs 컨센 3.7%) 모두 시장 예상치에 못 미치는 쇼크를 기록. 얼마전 CPI 개정에서 가중치가 34.4%에서 36.2%로 상향된 주거비의 물가가 높은 수치를 기록하면서(YoY 12 월 6.2% → 1 월 6.0%, MoM 12 월 0.4% → 1 월 0.7%), 2024년 첫 인플레이션 지표는 증시에 부정적으로 다가온 상황. 최근 연준 위원들 역시 인플레이션이 2% 목표치에 향해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 때 금리인하가 가능하다는 식의 입장을 표명해왔던 만큼, 이번 결과는 연준 입장에서도 그리 반길만한 일은 아님.

하지만 1 월 CPI 결과 값만 가지고서 증시 예상 경로를 전면적으로 수정하는 작업은 시기상조라고 판단. 우선 디스인플레이션 전제는 유효하다는 것이며, 이는 1 월 수치가 예상보다 높게 나왔어도 12 월에 비해 하락하고 있기 때문(헤드라인 12 월 3.4% → 1 월 3.1%, 코어는 3.9%로 유지). 또 클리블랜드 연은의 인플레이션 나우캐스팅 모델 상 2 월 헤드라인과 코어 수치가 각각 3.0%, 3.7%대로 제시되고 있다는 점도 참고.

더 나아가, 시장이 인플레이션 지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연준 정책 전환과 직결됐기 때문. 애초부터 “3 월 금리인하 시작 + 연내 6 회 인하”라는 뉴스풀로우상 자주 접했던 전망 자체가 과도하다는 것이 국내외 증시 참여자들의 보편적인 의견이었음. 관건은 “상반기 인하(6 월 유력) + 연내 3~4 회 인하”的 가정이 바뀔지 여부로써, 이 가정이 바뀌게 되면 올해 예상 연간 증시경로를 수정하는 것이 불가피(Fed Watch 상 연내 금리인하 횟수는 CPI 발표 전 6 회에서 현재 4 회로 컨센서스가 변화). 하지만 이 같은 수정 작업 여부는 2 월 고용과 2 월, CPI, 그리고 연준의 점도표 및 경제전망, 파월의장의 기자회견이 예정된 3 월 FOMC 까지 확인하고 결정하는 것이 적절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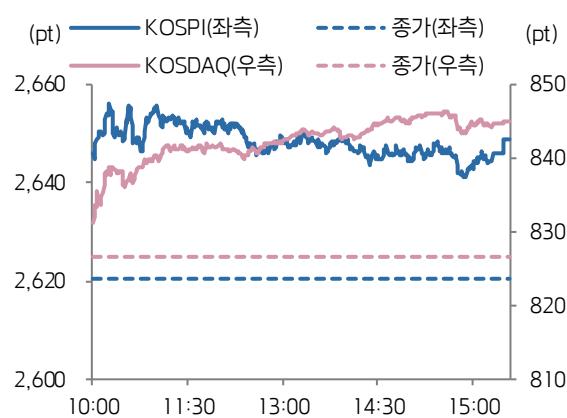
이번 CPI 여진이 증시에 중간중간 가격 되돌림을 만들어낼 소지가 있기는 함. 하지만 이미 CNN의 Fear & Greed index 상 극단의 탐욕에 영역에 진입하는 등 단기 과열 신호가 등장한 상태였기에, CPI 가 조정의 명분을 제공한 것으로 보면 될 것. 사실상 데이터 의존적인 만큼, 향후 발표되는 소비, 고용, 인플레 지표 변화에 따라, 전일과 같은 시장 분위기가 얼마든지 변할 가능성이 있음.

결론적으로, 지난 1 월 24 일 발간자료 “입스(YIPS)의 극복”에서 제시했듯이, “1 분기 매크로 불확실성으로 인한 변동성 장세 → 2 분기 이후 상승 추세” 전망을 유지. 현시점에서 추가적인 지수 하락이 나타나더라도 9~10 월처럼 매크로 악재로 인한 가격 조정이 재현될 확률은 낮으며, 적어도 3 월 FOMC 까지는 기간 조정에 그칠 것으로 전망.

전일 국내 증시는 연휴기간 동안 ARM, 엔비디아 등 AI 중심의 미국 증시 강세를 일시에 반영하면서 상승 출발한 이후 장중 일부 저 PBR 주들의 차익실현률이 출회됐으나, 외국인과 기관의 반도체 중심의 동반 순매수에 힘입어 상승 마감(코스피 +1.1%, 코스닥 +2.3%)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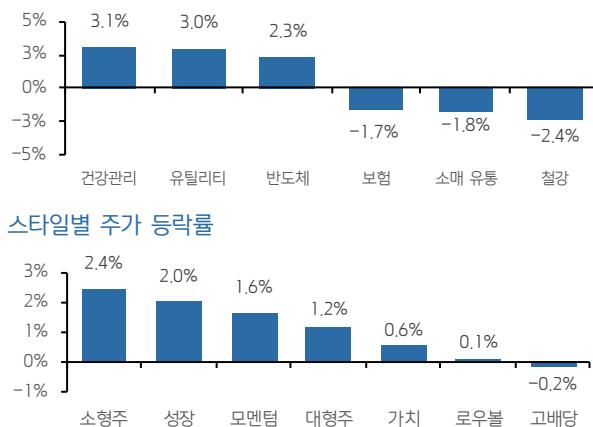
금일에는 1 월 인플레이션 지표 쇼크에 따른 달러 및 금리 상승 등 부정적인 매크로 환경으로 인해 중립 이하의 주가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. 물론 미국 빅테크 등 고밸류 주식 중심의 조정, 국내 저 PBR 업종에 남아있는 “기업 밸류업 프로그램” 기대감 등을 고려하면, 저 PBR 업종들이 오늘 장 대응에 유리할 수 있기는 함. 하지만 국내 증시는 저 PBR 장세 출현 후 쓸림 현상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저 밸류 주식들이 사실상 고밸류 주식의 성격으로 변해가고 있는 만큼, 단기적으로는 은행, 자동차 등 저 PBR 업종들의 수급 변동성 확대 예상(WMI 500 지수의 12 개월 선형 기준, 순수가치지수의 PBR은 1 월 말 대비 12.0% 상승 vs 순수성장지수 PBR은 1 월 말 대비 2.8% 상승).

KOSPI & KOSDAQ 일중 차트
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
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Compliance Notice

-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 -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고지사항

-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시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,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 -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시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, 유가증권의 종류, 종목,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이루어져야 하며,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. -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, 복제, 전시, 배포, 전송, 편집, 번역,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짰습니다.